

이남호 '핵심은 학력신장 3.0'

〈전북교육감 후보〉

후보 등록 후 본격 선거전
“말 아닌 결과로 증명된
역량 갖춘 리더 필요” 강조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가 1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 아닌 결과로 증명된 역량'을 갖춘 리더가 전북교육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남호 후보가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완료하고 '학력신장 3.0'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은 학력 저하와 지역소멸, AI 시대 대전환이라는 복합 위기 앞에 서 있다"며 "이제는 말 아닌 결과로 증명된 역량을 갖춘 리더가 전북교육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실용과 포용의 관점에서 교육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공약인 '학력신장 3.0'은 유·초·중·고를 연계하는 이음교육 체계를 기반으로 기초학력부터 진로·진학까지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가정·전북교육과정평가원을 설립해 기초학력 진단 학생부 관리 진학 컨설팅, 논·서술형 평가 대응 등을 통합 지원하는 컨트롤타워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별로 특화된 '명품 거점학교 10개'를 육성해 교육 격차를 줄이고 전북 전역의 학력 향상 평준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전북을 권역별 교육 거점으로 나누는 지역 전략도 제시했다. 전주는 AI·수학·과학 교육도시, 군산은 서해안 교육 수도, 익산은 진로·진학 선도도시

전북교육과정평가원 설립·명품 거점학교 육성 권역별 교육 거점 분산·교육재정 확대 등 제시

로 육성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완주 김제 부안 정읍 남원 무주 진안, 임실 장수 순창 고창 등 각 지역별 특화 교육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교원 보호와 행정 혁신 방안도 포함됐다. 학교 민원 통합 콜센터 설치, AI 민원 필터 도입, 전북교육시설관리단 신설 AI 행정비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신규 교사의 행정업무 줄이고 수업 중심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교사의 행정업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히며 교육 환경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교육재정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연간 5조 원 규모의 교육재정 시대를 목표로 외부 재원을 확대하고, AI 감사 시스템과 계약 공개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경쟁 후보를 겨냥해 도덕성 문제를 언급하며 "검증된 경험과 역량으로 전북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전북 남원 출생으로 전주교과와 서울대(학사·석사·박사)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총장, 전북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교사가 존중받는 학교 만들 것”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스승의 날 맞아 메시지 발표
내일 선거사무소 열고 본격 선거 행보... 비전 제시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가 스승의 날을 맞아 전북지역 교사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교사가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오는 1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선다.

천 후보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배움을 이끌고 삶을 보듬어 온 선생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전북교육이 유지될 수 있었다"며 "전북의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교육 현장이 반복되는 민원과 갈등,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책임 구조로 인해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고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은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학생의 배움과



학교의 안정도 함께 지켜진다"며 "교원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교육의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천 후보는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 강화와 함께 교육청·학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보호 시스템 구축, 부당 민원 대응 및 현장 지원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스승의 날은 단순한 감사의 날이 아니라 교사가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다시 다짐하는 날이어야 한다"며 "교사와 학생의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학교에서 교육의 질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천 후보는 16일 오후 1시 30분 전주시 평화동 백제대로 10번지 (롯데시네마 평화동 2층)에서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번 개소식에는 도민과 학부모, 학생 교육가족 등이 참석해 천 후보의 선거 행보를 함께할 예정이다. 캠프는 이번 행사를 단순한 출정식이 아닌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 중심의 자리로 기획했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응원 피켓과 떡 케이크 전달식 등 출범식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도내 고교생들이 직접 교육 관련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또한 개소식 이후 참석자들과의 릴레이 만남도 이어질 예정이다.

천 후보는 "교육은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며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을 찾아가고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선거운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올 상반기 시민감사관 감사 | 특수교육 등 3개 분야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분청 창조내 2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시민감사관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제7기 시민감사관 임기 중 마지막 실지감사로, 정책 중심의 현장 점검을 통해 교육행정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민감사관은 건축사, 변호사, 대학 교수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북교육청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조사 및 평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감사에서는 △특수교육 지원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외국 어 교육정책의 현황과 성과 △학교시

설 건축물 해체공사 관리 및 해체카리 운영 적정성 등 3개 분야가 점검 대상이다.

특히 단순한 지적 중심의 감사가 아니라 정책 운영 전반의 성과를 분석하고, 현장 중심의 개선 대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전주 완판본문화관에서 조직문화 열린 소통 마당을 열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통·존중 중심 조직문화 구축 추진

전북교육청, 열린 소통 마당 열어... 비효율 관행 개선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전주 완판본문화관에서 조직문화 열린 소통 마당을 열고 조직문화 개선 방향을 직원들과 함께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과 분청 및 교육지원청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조직 내 비효율적인 관행과 현장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지난해 조직문화 진단과 실천 과제 마련 이후,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현장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기획됐다.

1부 '열린 소통 마당'에서는 직원들이 조직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권한대행이 이를 직접 경청하며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구성원 간 연결 부족으로 인한 협업 한계, 2인 행정실 구조에서의 갈등 관리 어려움, 결과 중심 문화로 인한 과정 소통 부족 등 실제 현장에서 겪는 문제들을 제기했다.

2부에서는 조직문화 및 회의문화 진단문기인 플랜비그룹 최익성 대표가 '참여형 회의문화 개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최 대표는 수평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 원칙과 사례를 공유하며 실무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행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우수 사례를 현장에 확산하고, 조직문화 개선 실천 과제와 연계한 후속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성과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서의 소통과 존중이 함께할 때 완성된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 등 곳곳 캠페인 우선중서 실시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은 교육활동보호주간을 맞아 14일 전주유전중학교에서 '교육활동보호 등 곳곳 캠페인'을 실시하며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전주유전중학교를 시작으로 15일 전주여고, 20일 전주온빛초, 21일 전주서곡초 등 총 4개 학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전주유전중학교 정문과 등굣길 일원에서는 학생자치회와 교직원,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여러 명이 참여해 캠페인송과 교육활동 보호 문구가 적힌 손팻말,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홍보 책자와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안내했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교육활동 보호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배움과 안전한 학교 환경을 함께 지켜내는 공동체의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학생은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존중해야 학교생활이 더 즐겁고 안전해진다는 점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 교사 역시 "작은 인사와 배려가 교육활동 보호의 시작임을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채선영 교육장은 "학생과 교원이 서로 존중받는 안전한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14일 창조내 시청각실에서 제45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전수식을 연 가운데,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유공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선생님의 오늘, 우리 아이들의 내일 꽃피워'

전북교육청,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전수식... 근정포장·대통령표창 등 22명 수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창조내 시청각실에서 '제45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선생님의 오늘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꽃피워준다"라는 주제로, 학교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전북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상에서는 근정포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4명, 교육부장관표창 11명, 교육감표창 428명 등 총 22명의 대표 수상자가 선정됐다.

근정포장은 라구한 전북온라인학교장이 수상했으며, 대통령표창은 고은정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장 김진진 주산초등학교장, 이경희 용산초등학교장이 각각 받았다.

또한 국무총리표창은 김태유 전주유전중학교장, 엄지훈 전주온빛초등학교장, 이해은 임실동중학교장 한수미 이리고등학교 교사에게 수여됐다.

교육청은 수상자들이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형 수업 혁신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통한 학력 격차 해소,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대학생활 체험에 참여한 학생 39명 중 8명이 실제 대학에 진학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이번 사업이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 증가 흐름 속에서 사전적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대학생활 체험에 참여한 학생 39명 중 8명이 실제 대학에 진학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오상근 기자

형 진로·진학 지도 등 전북교육의 핵심 과제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대표 수상자들에게 직접 포상을 전수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 권한대행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고 묵묵히 길을 열어나주시는 선생님들이 전북교육의 가장 큰 자산"이라며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장애학생 대학 진학 자신감 '뽀뽀'

전북교육청, 장애학생 대학생 생활 체험지원사업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진학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장애학생 대학생 생활 체험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전공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학생들이 실제 대학 캠퍼스를 경험함으로써 진로 설계 역량과 대학 진학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수학교 전공과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직업교육을 지원하는 2년 과정으로, 대학 진학과 다양한 진로 선택을 함께 지원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프로그램은 우석대학교와 전주기전대학교에서 진행되며, 도내 15개

교 약 4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우석대학교에서는 5월 12일과 14일 체험이 진행되며, 전주기전대학교는 1차 5월 14~15일, 2차 6월 18~19일 일정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대학 강의실과 편의시설 이용, 학과 체험 캠퍼스 적응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진로 방향을 직접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업이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 증가 흐름 속에서 사전적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대학생활 체험에 참여한 학생 39명 중 8명이 실제 대학에 진학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오상근 기자

부안학생교육문화관, 제8098부대 부안대와 학생 진로교육 협력

부안학생교육문화관(관장 박수진)과 제8098부대 부안대(대대장 김윤화)는 14일 문화관 3층 시청각실에서 학생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내 군(團)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부안학생교육문화관이 운영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 길라잡이 프로그램'에서 군 직업 소개, 진로 경로 및 준비 과정 안내 등 진로 특강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작가와

의 만남' 등을 운영해 군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문화 협력 모델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